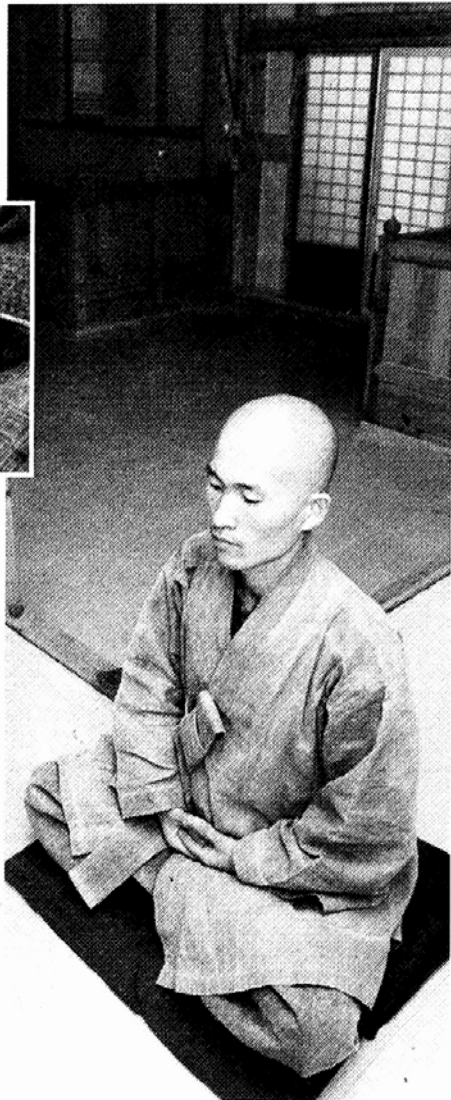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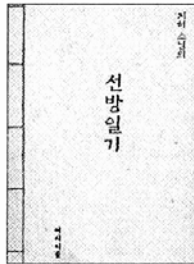


“아하! 선방생활 이렇구나”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선방의 생태와 풍속
안거 3개월 논픽션 서술



‘선방일기.’ 선방은 선승의 수행 장소로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미지의 영역’이나 마한가지이다. 선방의 속내를 비공개로 함은 불가의 오랜 전통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선방의 일과가 솔직 담백하게 실려 있는 신간 <선방일기>(여시이문)는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것도 현재가 아니라 30여 년 전 생활을 선격의 시각으로 적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남자 지허스님이 70년대 초 오대산 상원사 선방에 방부드러 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지허스님이 상원사 선방에서 방부를 드리고 처음으로 한 일은 겨울채비이다. 동안거를 해야하는 선방에서 겨울을 지내려면 김장과 매주, 그리고 빨감 울력은 필수. 당시만해도 그것은 불문율로 되어 있는 선격들의 관습이었다. 겨울채비에 이어 삭발과 목욕을 하는 것으로 결제준비를 마치고 안거에 들어간다.

이 책은 결제 불공을 마치고 옹명정진하는 선격들의 모습에서부터 소임, 선방의 생태와 풍속, 포살, 해제 등은 물론 3개월 동안의 선

방생활까지 자세히 적고 있다. 특히 눈길을 가는 대목은 선격들의 검소한 생활과 철저한 수행이다. 두량(頭量)·족난(足暖)·복팔분(腹八分)은 간소한 생활의 상징이다.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하게 배는 만복에서 이분이 모자라는 팔분이라는 뜻이다.

대중들이 모여 생활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기 마련. 선방에서도 이런 종류의 일이 종종 벌어지는 모양이다. 지허스님이 털어 놓은 선방의 뒷이야기도 이 책의 또 다른 맛이다.

인간이란 육체가 우위냐, 정신이 우위냐는 선격들의 뒷방 논쟁에서부터 조실스님과 주지스님의 시자(을깨기, 늦깨기)들의 서얼다툼, 원주스님 물레 솥배에 감자를 구워먹는 이야기, 벌칙으로 만두를 만드는 이야기 등은 빙그레 미소짓게 읽다가 자신도 모르게 코끝이 찡 하는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이런 생활속에서도 화두를 놓지 않는 선격들의 투철한 자세는 후학들이 되새겨 볼 만하다.

지허스님은 “화두는 거북이 걸음인데 세월은 토끼발이다”며 “어찌 잠시라도 화두를 놓을 수가 있을까”며 반문하기를 그치지 않

으며 스스로를 책찍잡는다. 고독할 때 화두를 더욱 들어야 한다고 것도 스님의 수행 철학. 잠재되어 있는 세속적인 욕망이, 고독을 느낄 때일수록 고개를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님은, 선격은 고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지허스님이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을 책의 형태로 묶은 것이다. 일반인으로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 생활 풍토는 물론 70년대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값진 게 아니다.

19일 동안거를 마친 한 젊은 스님은 “지금의 선방생활과 비교도 안될 빈약한 의식주 속에서도 철저히 수행에 정진하고 법거랑을 나누었던 스님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며 “선대 선승들의 수행은 사표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평했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나 재가불자들에게도 훌륭한 수행의 거울이 될 것 같다. 값 5천 원.

김종근 기자(gamja@buddhania.com)

‘시로 읽는 서산대사’ 펴낸 김형중 교법사

“서산은 높고 깊은 산이었다”

“서산대사의 생애는 드라마틱하다. 그의 삶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대사 스스로 <삼몽록(三夢錄)>에서 밝혔듯이 한 바탕 큰 꿈이었다.”



(시로 읽는 서산대사)(밀알)를 손에 쥔 김형중 교법사(명성여고)가 말하는 서산대사의 생애이다. 김 법사가 서산대사를 처음 만난 것은 ‘서산대사의 시문학론’을 대학원 학위 논문으로 준비하면서부터이다. 서산대사의 선시를 이해하기 위해 그는 <청허당집>의 고관본인 초간본, 태안사간, 용복사관과 <사명집> 등에 3년이나 매달렸다.

김 법사가 두 번째로 서산대사를 만난 것은 불교진흥원에서 <청소년 불교성전>을 편찬할 때이고, 세 번째는 96년 밀알에서 한국의 고승전(원효에서 만해까지)을 시리즈 편찬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을 때이다.

이 당시 그는 전래등화(서산대사의 사명당)에서부터 소설, 영화, 비디오 테이프, 각종 강의 테이프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해 읽고 또 읽었다. 심지어는 명절때 고향도 못 갈 정도로 서산대사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김 법사는 이번에 출간한 <시로 읽는 서산대사>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한다. “생애와 사상, <선가귀감>, <청허당집> 등이 따로 연구되었던 것이 하나로 융합돼 서산대사의 면목을 일관할 수 있다. 또 시집 <청허당집>을 내용별로 분류해 시를 통해 사상과 생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한글세대를 위해 한글을 원칙으로 했다.”

20여년 동안 호국대, 사가사, 시인으로서의 서산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김 법사는 “서산은 실로 깊고 높은 산이었다. 마지막 봉우리를 오르기 위해 지금도 등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값 8천5백원. 김종근 기자

강원교재에 들어 있는 난자(難字)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난자집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이 치문, 사집, 사교 등 강원교재에 나타나는 어려운

난자(難字)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난자집 4권을 출간했다. <치문난자집> <사집난자집> <사교난자집> <화엄경난자집>이 바로 그것이다. 한

자의 여러가지 뜻 가운데 어느 것이 경구에 적당한지를 알려주는 이 난자집은 특수사전이라 할 정도로 자세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난자집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번 제기돼 왔으나 구체화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여시이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만행-해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림원
2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3	금강경 강해	김 용 욱	통 나 무
4	노자와 21세기(하)	김 용 욱	통 나 무
5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6	종경	원 성	이 레
7	유식삼십삼론	박 인 성	민 족 사
8	필교보리심론	혜 정	해 인 립
9	오계이야기	일 타	효 립
10	부처님께 재물 빌면	스티븐리벨	여시이문

도서 안내:(02)737-0695

시와 그림으로 만나는 석굴암

고영섭씨 엮은 ‘새천년에...’

문인 31명의 시 수록

이호신씨 그림도 곁들여



◇‘석굴암 원경’ 이호신 작 정시환의 <산중일기>에 실린 석굴암 관련 기록도 실고 있다.

이 책을 엮은 고영섭씨는 “이 시집은 우리 시의 정화인 신라 향가의 집성(삼대목)처럼 한국 현대시의 (삼대목)이다”며 “우리조상들의 장대한 시간감과 공간감을 ‘석굴암 관세음’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값 1만원. 김종근 기자

와 함께 화가 이호신씨가 시적 감흥을 표현한 그림 31점을 곁들여 독자들로 하여금 감동의 공명을 더욱 확장시키게 한다. 또 부록으로 일연스님의 <삼국유사> 효선편의 대성효이세부모와 정시환의 <산중일기>에 실린 석굴암 관련 기록도 실고 있다.



불교환경교육원 환경관련서 4종 출간

불교와 환경사상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자들은 어떻게 생태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

자타가 인정하는 환경교육기관으로 자리잡은 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범불스님)은 최근 이런 의문에 답해 줄 환경관련서 4종을 동시에 출간했다. 불교환경교육원이 개설한 생명운동아카데미와 생태학교에 출간한 환경전문가들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생태적 각성을 위한 수행과 깨달음·영성>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생태주의와 에코페미니즘>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등이 그것.

<생태적 각성...>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만이 모든 생명을 넉넉히 안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생태적 각성을 위한 깨달음과 영성, 즉 ‘자연과 인간의 일체를 위한 깨달음’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 범불스님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거나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은 ‘환경적 무명(無明)’이며, 깨달음 중 가장 큰 깨달음은 환경적 무지를 타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환경윤리...>는 인간의 환경적 실천의 근본 원리는 자연적 존재의 생명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의 해방과 ‘살림’을 포괄하는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의 흐름을 정리했다.

<생태적...>은 평화와 포용으로 새로운 세계관과 여성운동을 열어가기 위해 모든 억압당하는 것의 해방과 ‘살림’을 포괄하는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의 흐름을 정리했다.

<생태적...>은 인간을 소외시키고 자연을 죽음으로 이끈 집단적 무의식, 관념과 상(相)을 들여다 보는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을 가능하게 함을 보여준다. (02)587-8997 김재경 기자(jgkim@buddhania.com)

왕눈이 스님



서산대사의 범불을 이어 한국불교의 도도한 흐름을 계승시킨 권양 언기스님의 생애를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강박으로서, 선승으로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어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스님이 언기스님의 법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 ‘이렇고’ 화두를 들고 살았기에 ‘이렇고’ 스님으로 불리워졌으며, 양을 치면서 수행한 일,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던 일 등은 수행과 중생교화에 전념했던 스님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정수일 글·그림/신국판/245쪽/값 6,000원

성철 큰스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철저한 수행과 정진으로 일생을 일관하여, 잠자던 한국불교를 깨워 일으켰던 성철 큰스님. 20세기 한국불교 최고의 선승으로 추앙 받는 성철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임기준 글·조성원 그림/값 6,000원

박야심경

대승불교의 핵심은 ‘공(空)’ 사상이다. 그런 만큼 ‘공’을 이해하면 불교를 다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만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공’ 사상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그려 나가고 있다. 임기준 편역, 남교회 그림/값 6,000원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재미있는 불교만화

백유경

부처님의 설법은 문학의 보물창고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비유와 교훈들로 가득차 있다. 특히 백유경은 그러한 이야기들만을 모은 것이다. 만화 백유경은 웃으며 보다가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를 얻는 재미와 교훈을 담은 100가지 비유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임기준 편역, 남교회 그림/값 6,000원

화엄경 (전10권)

부처님 설법의 정수로 꼽히는 화엄경. 그러나 화엄경은 그 분량의 방대함과 내용의 난해함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 만화는 어린 선재동자가 구도여행을 하며 53명의 덕 높은 스승들을 만나 진리의 세계에 눈을 떠가는 이야기를 통해 화엄경의 진수를 쉽고도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임기준 글·조성원 그림/10권/값 각각 5,000원

불타석가모니 (전3권)

제1권 출가, 제2권 성도, 제3권 전법
부처님께서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태어나 위대한 큰 도를 이루시고 45년간 그 깨달음을 퍼신 과정에서 가장 요긴한 점들을 모아 재미있게 엮고 있다. 임기준 글·조성원 그림/값 각각 6,000원

백유경

부처님의 설법은 문학의 보물창고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비유와 교훈들로 가득차 있다. 특히 백유경은 그러한 이야기들만을 모은 것이다. 만화 백유경은 웃으며 보다가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를 얻는 재미와 교훈을 담은 100가지 비유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임기준 편역, 남교회 그림/값 6,000원